

# 오피니언

## 특별기고

박준영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개 숙여 추모의 정을 바칩니다. 서거 당시 우리 도민들과 국민, 그리고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대통령님의 올곧은 인생역정을 기리며 앞 다퉈 조의를 표했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국민에게 바치셨습니다. 특히, IMF를 조기에 졸업하겠다는 일념으로 외국투자자라고 하면 1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도 낮은 밤이나 이른 새벽을 가리지 않고 만나주셨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 계승을

그래서 2년 반 만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30여 달러밖에 없던 나라 곳곳에 1300여 달러를 채웠습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는 “왜 남북한 7천만 민족이 분단돼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냐? 김정일 위원장이나 나나 영원히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 민족과 후손에게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을 하자.”며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

끌어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평생 갈구하셨던 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그리고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으로 이뤄낸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 사랑도 지극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프랑스로 파리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을 때 축하 전화를 통해 “앞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잘 치러서 국인이 융성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님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되었던 하의도 농민운동 기념관 개

관식에 참석하시어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 반의 감옥살이를 겪었지만 전라도민들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독재를 물리치고 경제를 살렸으며 남북 화해의 기운을 가져와 10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고향 방문이었다”고 술회하셨습니다.

김대중 그 이름 석자와 그가 꿈꾸었던 이상은 분명 한국 역사의 큰 자산으로 남

을 것입니다. 그 큰 자산을 더 키우고 계승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미래를 보는 냉철한 국가관과 역사관,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대통령님의 유지는 반드시 계승 발전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출신이라는 굴레를 쓴 대통령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제15대 대통령으로,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선각자로, 또 세계적인 평화 전도사로 길이 기억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통령님의 가슴속에 한과 빛으로 남아있을 낙후된 전남의 운명을 바꿔서 기필코 의롭고 잘사는 전남,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전남을 만듭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점해서 산업화시대에 뒤처졌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부문에서 우리 전남이 앞서가도록 합시다.

오늘 서거 1주년을 맞아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셨던 숭고한 가치들의 향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이 깊이 퍼져 영원히 간직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시설

###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충분한 논의 있어야

광주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민선 5기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시의원, 교수, 시민 등 15명으로 무등산생태관리 특별기구 팀을 구성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환경부와 이미 업무협의를 갖고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달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이 같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무등산을 전국 브랜드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으로 각종 관광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등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도 적지 않다. 우

선 국립공원 지정부터 만만치 않다. 무등산의 면적은 30.32km로 20곳에 이르는 전국 국립공원 평균 면적(329km)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협소한 면적으로 과연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체 면적의 67%가 사유지여서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은 환경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또한 무등산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시민 이용 편의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국립공원 승격 문제를 민선 5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정 현안으로 취급하거나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은 물론 지역 환경·역사·지리·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 방학이 괴로운 장애학생들 대책 시급하다

장애학생들에게는 방학이 괴롭다고 한다. 학기 중에는 장애인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방학 동안에는 거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사에 매달려 있어 밖으로 데리고 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 스스로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지를 가고 싶어도 여건이 여의치 않다. 도로의 턱은 높고, 골목길은 주차장인데 차들은 과속운행을 일삼고 있어 모든 것이 위험천만이다. 주부의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도 따갑다. 그러다보니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일과라고 한다.

그렇다고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간보호시설이란 곳을 이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돈이다. 현재 광주에는 서구 6곳, 북구 3곳, 남구 2곳, 광산구 2곳, 동구 1곳 등 14곳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까닭에 월 평균 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장애가정의 입장에서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학생들이 집에서만 보내는 것은 사실 '차상' 없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안전 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먼저 교육청이 나서 학교를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교사들이 방학인 만큼 대체교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관비비 등은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당연하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학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 無等鼓

SF영화인 '스타워즈'나 TV공상과학 시리즈 '스타트랙'을 보면 날아오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막아내는 보호막이 등장한다. 레이저와 핵폭탄을 포함해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할지라도 이 보호막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 보호막 내부의 사람이나 건물에는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한다. 역장(力場·Force field)이라고 불리는 이 보호막은 영화에 나오는 수준만큼의 강력한 것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제품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기체를 섭씨 7000~8000도까지 가열한 뒤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만들어진 창(window)에 집어넣은 '플라즈마창'이 그것으로, 작업장 일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등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워즈에서 진공하는 부대의 보호막으로 사용되기도 했을 만큼 전쟁터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론물리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치오 카쿠'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 내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플라즈마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역장을 겹겹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쿠는 제일 바깥층에 초고온 상태의 플라즈마 창을 배치하고, 그 아래 두 번째 층에는 고에너지 레이저빔으로 만든 커튼을, 그리고 세 번째 층에는 탄소나노튜브로 만들어진 격자 층을 설치하면 전쟁에서 보호

막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100년 내에는 어떻게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이 폭침돼 46여 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북에서 흘러 내려 온 북한군 포탄이 NLL이남까지 떨어지고 있는 데도 정부는 수수방관,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나서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일한 전역에 보호막을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

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 보호막



## 기고

백남길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부족한 인력을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거주지 거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소방조직이나 최근에는 전문 소방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 및 오지 지역 의 소방사각지대에는 전문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소방관서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운영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초기까지 자연부라 단위의 자위 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

### 화재와의 전쟁 나선 의용소방대

이 마련되어 현재 광주시 의용소방대는 5개 소방서에 1200여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86년 11월 설립하여 분부대, 여성대, 각 지역대 등 2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유일한 민간보조조직으로 화재예방·진압·재난복구·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10년 3월 6일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방관서와 함께 화재현장 5분 이내 출동을 제고시키고, 하계휴가기간 동안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합동근무 및 금당산에 설치된 구급함 정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설명, 화재예방 캠페인활동, 소방순찰, 소방점검,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 제로화(Zero)를 위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몸담아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느낀다. 첫째 독거노인, 노후화된 공동주택,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설비의 노후화로 화재로부터 위험

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심야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무료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성에 기업, 뜻있는 독지가, 향우회 등이 동참하여 준다면 화재 예방에 크나큰 도움이 되어 내 가족, 부모형제의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80~96%다.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도 의무적으

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소 17만 7114개소 중 3391개소만이 가입하고 있어서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식점이나 다중 이용시설업자라도 화재보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600mm 미만 시설물의 인명 및 건물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화재 보험료는 연간 17만 7000원에 불과해 월별로 나누어서 내면 사실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의용소방대에서도 15년 동안 이웃들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뜻있는 분들이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유난히 전 세계가 폭염으로 휩쓸려 여름, 소방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이웃으로서,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하여, 광주지역 의용소방대가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서부의용소방대장>

### 해수욕장 오토바이 폭주족 활개.. 사고 위험 주의를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다. 그러나 조용히 쉬고 싶어서 갔던 것이 짜증만 더하고 왔다. 바로 오토바이 폭주족 때문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토바이 예닐곱 대 정도가 시끄럽게 내달리며 해수욕장에 쉬러 온 사람들을 방해했다.

백사장 옆에 난 도둑가에서 앞바퀴를 치켜들어 위험하게 운전하는 자를 보면, 뒷좌석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여학생들을 태우고 생생 내달렸다. 도로에서는 자기 차

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마구 달리거나 심한 경우 역주행까지 일삼았다. 또, 지나는 차들을 위협하고 레저용 4륜 오토바이까지 비포장 도로와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니 먼지와 소음으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였다.

교통질서를 파괴하고 운전자들의 운전 방해와 휴식을 취하려 온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 은펜칼럼

김래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세상을 엄습하던 더운 여름날 '블라인드 스쿨'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현직교사이자 소설가인 정경철씨가 쓴 이 소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기도 한데, 학교 현장에서 누구든 겪어보았을지언정 내용을 독특한 구성으로 담고 있는 소설이다. '오늘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호하고도 날카로운 비수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필자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답답한 기분이었다. '공부'와 '성적'이라는 두 단어 이외에

만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밤 열시까지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타율학습은 진행되고 있고 -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학습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할까? - 학원을 때려잡아야 사고육비가 줄어든다는 이 코미디같은 논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마녀 사냥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광주에서는 최초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었다고 난리 벌어졌지만, 아마도 장휘국 당선자가 교육감 자리를 떠나는 그날까지 오늘날 광주의 고등학

### 블라인드 스쿨

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동네 목욕탕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계묘인 장소에서, 자식의 성적과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 꿈꾸는 삶을 살고 싶은 학생들, 교육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자꾸만 어지러운 선생님들,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어느 유명 온라인 학원 강사는 '니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어 수능시험 안보는 세상 만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이 지위와 권력의 삶을 살고자하는 욕망으로 집결된 이상 이런 안타까운 교육 현실이 결코 바뀔 것 같지 않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고, 요새는 입학 사정관이니 뭐니 말이 많지

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교생 참여 자율학습은 전혀 이상무일 것이며, 학부모들은 더욱 열심히 과의 선생들을 집으로 불러 자기 자식의 성적 올리기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보아왔던 변화하지 않는 교육계의 현실이며, 근본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구조이기 때문이다.

바뀌지 않는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들춰내고 있는 소설 '블라인드 스쿨'을 읽으며 자꾸 슬퍼지는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소설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던 한 소설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아. 고통을 나누다 보면 물결은 솟아날 그 무게는 훨씬 커져서 마침내 고통을 나누었다는 사실마저 후회하기 때문이다." <문화평론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미성년 자녀에 술 심부름 시켜선 안된다

부모님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한번은 청소년 몇 명이 부모님 심부름이라며 술을 사러 왔다고 한다.

부모님은 팔면 안 되는 걸 알았기에 안 된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부모님이 이럴 줄 알고 메모지에 적어 주셨다며 "이 위에 골목에 사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팔아달라"라는 메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른의 심부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그 애가 휴대폰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바꿔주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 아빠가 실제로 심부름을 시킨 게 맞기는 했다. 그러나 어른이 아이들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게 잘못이었고, 또한 그런 일로 술을 팔지 않을 경우 너무 간간하게 군다, 수퍼가 거기뿐이냐고 따지는 황당함 부모들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라 훈방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면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부모에게 벌금이라도 물어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교육에 사용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태동·광주시 서구 서침동